



뉴질랜드 럭비팀의 기선 제압 '하카 춤' 11일 웰링턴에서 열린 뉴질랜드와 호주의 브레디스모에 컵 럭비 경기에 앞서 뉴질랜드 선수들이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 전사의 기운을 담은 국민 춤 '하카'를 추고 있다. /연합뉴스

19세 '테니스 신성'

시비옹테크, 프랑스오픈 우승...폴란드 선수 첫 메이저 단식 챔피언에

이가 시비옹테크(54위·폴란드)가 폴란드 선수로는 남녀 통틀어 처음으로 메이저 대회 단식 우승을 차지하는 역사를 썼다.

시비옹테크는 1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의 스타드 롤랑가로스에서 열린 프랑스오픈(총상금 3800만 유로) 14일째 여자 단식 결승에서 소피아 케닌(6위·미국)을 2-0(6-4 6-1)으로 물리쳤다.

이로써 시비옹테크는 4대 메이저 대회 중 가장 역사가 긴 윌블던 첫 대회가 열린 1877년 이후 남녀 통틀어 폴란드인으로는 처음으로 단식 챔피언에 오른 인물이 됐다.

1968년 이후 오픈 시대 메이저 대회에서 폴란드 선수가 여자 단식에서 올린 최고 성적은 아그니에슈카 카라드반스카(은퇴)의 2012년 윌블던 준우승이다.

프랑스오픈에서는 오픈 시대 이전인 1939년 대회에서 야드비가 엔드제호프스카가 준우승을 차지한 게 폴란드 여자 선수의 단식 최고 성적이었다.

2001년생으로 열아홉 살인 시비옹테크는 1992년 모니카 셀레스(당시 19세·현 미국) 이후 가장 어린 나이에 프랑스오픈 여자 단식에서 우승하는 기록도 썼다.

2016년 프로로 데뷔한 시비옹테크는 이 대회 전까지는 지난해 프랑스오픈과 올해 호주오픈 16강이 자신의 메이저 대회 최고 성적이었다.

아직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 우승 경험도 없는 시비옹테크는 자신의 프로 첫 우승을 메이저 대회에서 일구며 단박에 '여자 테니스 신성'으로 떠올랐다.

시비옹테크는 프로 데뷔 이래 획득한 누적 상금 총액인 110만6808달러(약 12억 7000만원)의 두 배 가까운 160만 유로(약 21억 7000만원)를 이번 대회 단식 상금으로 벌어들였다.

시비옹테크는 준결승까지 오른 여자 복식에서도 11만606 유로(약 1억5000만원)의 상금을 챙겼다. 본선 7경기 내용도 기록적이다.

16강에서 톱 시드 시모나 할레프(2위·루마니아)를 2-0(6-1 6-2)으로 완파한 것을 포함해 결승까지 모든 경기에서 2-0으로 이겼다.

프랑스오픈에서 여자 단식 무실 세트 우승자가 나온 것은 2007년 쥐스틴 에닝(은퇴·벨기에) 이후 13년 만이다.

1세트 게임스코어 3-0으로 앞서다가 실책을 연



1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의 스타드 롤랑가로스에서 열린 프랑스오픈에서 우승한 시비옹테크가 트로피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다. /연합뉴스

발하며 3-3 동점을 허용했던 시비옹테크는 다시 곧바로 상대 서브 게임을 브레이크, 5-3으로 앞서 기선을 잡았다.

2세트에서는 먼저 자신의 서브 게임을 내주고 0-1로 뒤진 가운데 시작했으나 이후 한 게임도 내주지 않고 1시간 24분 만에 우승을 확정했다.

시비옹테크는 올해 호주 오픈 우승자로 한 해에

메이저 2개 대회 우승을 노리던 케닌을 상대로도 공격 윷수 25-10, 서브 최고 시속 180km-157km로 압도적인 경기를 펼친 끝에 역사적 우승을 거머쥐었다. 왼쪽 허벅지에 테이핑하고 경기에 임한 케닌은 2쿼터 도중에 테이핑을 더 강하게 하는 등 부상 투혼을 발휘했으나 결국 패배가 확정된 뒤 눈물을 흘렸다. /연합뉴스

18세 '축구 신동'

파티, 바르셀로나 1군 승격하자마자 라리가 '9월의 선수' 선정

'스페인 축구의 미래' 안수 파티(18)가 FC바르셀로나 1군으로 정식 승격하자마자 프리메라리가(라리가) 이달의 선수로 뽑혔다.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 사무국은 11일

(한국시간) 파티가 2020-2021 시즌 9월의 선수에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파티는 EA스포츠 웹사이트에서 진행한 팬 투표에서 미켈 메리노(레알 소시에다드), 이아고 아스

라스(셀타 비고), 세르히오 카날레스(레알 베티스), 호세 루이스 모랄레스(레반테), 루이스 수아레스(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루이스 미야(그라나다)를 제치고 올 시즌 첫 프리메라리가 이달의 선수로 이름을 올렸다.

파티는 바르셀로나의 올 시즌 프리메라리가 첫 경기였던 지난달 28일 비야 레알과의 홈 경기에서 두 골을 몰아 넣고, 페널티킥도 얻어 리오넬 메시의 추가 득점에 기여하는 등 맹활약하며 팀의 4-0 승리를 이끌었다.

지난 2일 셀타 비고와의 원정 경기에서는 선제

결승 골로 2경기 연속 골을 기록하며 바르셀로나에 3-0 승리를 안기기도 했다.

2002년 서아프리카의 기니비사우에서 태어난 파티는 여섯 살 때 가족과 함께 스페인으로 이주한 뒤 바르셀로나 유스팀을 거쳐 지난 시즌 1군 데뷔전을 치렀다. 이후 바르셀로나 구단 최연소 득점(16세 304일),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최연소 득점(17세 40일), 스페인 국가대표팀 최연소 A매치 출전(17세 308일) 및 득점(17세 311일) 기록을 갈아치우는 등 그라운드에서 설 때마다 새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다. /연합뉴스

만 50세 '골프 여제' 소렌스탐

내년 US 시니어오픈 출전 "글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에서 누구보다 더 굵고 뚜렷한 발자취를 남긴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이 9일 만 50세 생일을 맞았다.

소렌스탐은 LPGA투어에서 메이저대회 10승을 포함해 통산 72승을 올렸고 8차례 올해의 선수에 올랐던 역대 최강이었다. 여자 선수로는 유일하게 59타를 쳤다.

2008년 현역에서 은퇴한 소렌스탐은 하루짜리 이벤트 대회가 아니면 공식적으로 코스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남편 마이크 맥키와 골프아카데미와 각종 골프 관련 사업을 하는 소렌스탐은 그러나 딸 아바(11), 아들 윌(9) 등 가족과는 자주 골프를 친다. 친구, 친지, 후배들과 라운드도 즐긴다.

자전거와 펌박질, 수영으로 현역 시절 못지않은 체력과 몸매를 유지하고 있다는 소렌스탐은 "연속 라운드, 프로암, 대회를 이어지며 매주 6일 동안 긴장 속에서는 치는 골프는 아니지만, 골프는 자주 친다"고 AP통신과 인터뷰에서 밝혔다.

명예의 전당 회원인 그는 마음만 먹으면 LPGA 투어 대회에도 출전할 수 있지만 "지금 LPGA투어에서 뛰는 선수들 나이는 내 절반이거나 그 이하야 나"며 손사래를 쳤다.

소렌스탐은 대신 후배 육성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안니카 재단을 통해 주니어 골프 육성 사업에 나선 소렌스탐은 지난해 무려 1만2000km를 여행했다.

코치, 선수 부모, 선수가 질문하면 언제든 답을 내놓는다.

소렌스탐은 "(사회에서) 내가 받았던 일부나마 돌려주려는 것"이라면서 "지식이든, 사연이든, 추억이든 뭐든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50세가 넘으면서 내년 US 시니어 여자오픈 출전 자격을 갖춘 소렌스탐은 그러나 출전 여부에 확답을 꺼렸다.

다만 그는 "은퇴해서 새로운 삶을 사는 내가 자랑스럽다"면서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현재의 삶을 즐기고 있고, 만족한다. 나는 행복"이라고 덧붙혔다. /연합뉴스

허리 부상 '스키 여제' 시프린

알파인 월드컵 개막전 불참

미케일라 시프린(25·미국)이 허리 부상으로 국제스키연맹(FIS) 2020-2021시즌 알파인 월드컵 개막전에 불참한다.

AFP통신은 10일 "시프린이 17일 오스트리아 쾰덴에서 열리는 2020-2021시즌 FIS 알파인 월드컵 개막전에 불참한다"고 보도했다.

시프린은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지난주 허리에 다소 무리가 왔다"며 "일단 개막 경기에 쉬면서 남은 시즌 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2월 부진상을 당한 이후 2019-2020시즌을 중도에 마감했고, 이후 공식 경기에 출전하지 않고 있다.

2016-2017시즌부터 3년 연속 FIS 알파인 월드컵 여자부 종합 우승을 독식한 그는 지난 시즌에는 페데리카 브리노네(이탈리아)에게 우승컵을 내줬다.

시프린은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회장과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다.

월드컵 대회에서 통산 66차례 우승, 남녀를 통틀어 알파인 월드컵 스키 최다승 부문 4위에 올라 있다.

시프린보다 승수가 많은 세 명은 모두 은퇴한 선수들로 남자부 임에마르 스텐마르크(스웨덴)가 86승, 마르셀 히르셔(오스트리아)가 67승을 거두고, 여자부에서는 린지 본(미국)이 82승을 기록하고 현역에서 물러났다.

이번 시즌 알파인 월드컵은 17일 개막해 2021년 3월까지 주로 유럽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중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담보, 다바
2관	인원지드
3관	애프타: 그 후 국장판 미니특공대: 햄버거괴물의 습격
4관	담보, 다바
5관	국제수사
6관	담보
9관	담보, 그린랜드, 국제수사
7관 씨네카를	애프타: 그 후, 국제수사 피원아이차: 새로운 세계의 시작 죽지않는 인간들의 밤
8관 씨네카를	검객, 트롤링, 반정, 다바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경계의 공간

GAC기획전시
경계의공간
2020. 9.1.(화) ~ 11.1.(일)
광주문화회관 갤러리

백건우와 슈만

회관 개관29주년 기념 특별기획
백건우와 슈만
2020. 10. 20.(화) 19:30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라흐마니노프

GAC기획공연 FOCUS
뮤지컬 라흐마니노프
2020. 10.16.(금) 19:30, 17.(토) 17:00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즐거움

문화 산책

그의 분노는 당신을 향한 테러가 된다

인원지드